

꽃잎처럼 스러진 청춘의 꿈 마당판서 달랜다

놀이패 한라산 13회째
4·3평화인권마당극제
9팀 참여 6월 14~16일
위안부 고통과 세월호 등
우리네 삶과 역사 생생히



일본 시가현 극단 돌의 1인극 '캐리멜'.



경기도 안산의 극단 결판의 '분노의 포도'. 제13회 4·3평화인권마당극제에는 국내외 9팀이 우리네 삶과 역사를 생생히 풀어낸다.

그날, 꽃잎처럼 스러져간 푸르른 청춘들의 꿈이 마당판에 펼쳐진다. '생명의 호흡 평화의 몸짓'이란 주제를 내건 4·3평화인권마당극제다.

놀이패 한라산 주관으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마당극제에서는 제주에서 일본까지 모두 9팀이 어제와 오늘 우리네 삶과 역사를 생생히 풀어낸다. 경북 청송의 나무담움직임연구소, 부산 극단 자갈치, 경기도 416가족극단 노란리본과 극단 결판, 광주놀이패 신명에 더해 일본 시가현의 극단 돌이 제주를 찾는다. 제주에서는 놀이패 한라산, 청춘모닥치기, 여상익이 마당에 오른다.

마당극제는 6월 14~16일 4·3평화

공원 야외 가설무대와 실내 교육센터에서 치른다. 첫날 오후 6시30분 합덕리 다우령 풍물패와 덕수리 방앗돌사물놀이패의 개막극, 구좌읍민속보존회의 다량쉬서우제, 한라산의 4월극 '조천중학원'으로 막이 올라 3일 동안 공연이 이어진다.

6월 15일에는 여상익의 1인극 '그 사람', 위안부 할머니들의 잃어버린 이팔청춘에 바치는 자갈치의 1인극 '이팔청춘가', 광주 5·18을 다룬 신명의 '인젠가 봄날에',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인 노란리본의 '장기자람'을 차례로 볼 수 있다. 공연은 오후 3시부터 시

작된다. 6월 16일에는 일본 땅에서 필사적으로 살아온 어느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인생을 그린 돌의 1인극 '캐리멜', 한라산의 대표 마당극을 마당뮤지컬로 새롭게 탄생시킨 청춘모닥치기의 '햇모', 존 스타인벡의 동명 소설을 각색해 소시민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결판의 '분노의 포도'를 만

날 수 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날 공연은 나무담움직임연구소와 제주 풍물굿패 신나락의 폐막극으로 닫힌다.

마당극제 기간에는 부대행사로 '군병놀이' (6월 15일 오전 10시)가 마련된다. '배우의 자아'를 주제로 워크숍 (6월 16일)도 이루어진다. 문의 064)753-9539. 전선희기자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국회서 청신호 켜나

오영훈 의원 특별법 개정
재단 설립 조항 신설 추진
위성곤 의원 '탐라 특별법'
연구기관 설치도 고무적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를 가칭 '제주학연구재단'으로 독립화하는 방안이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

당, 제주시)이 제주학연구재단 설립을 골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학연구재단 설립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의 학술용역 심의를 통과했고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용역 착수가 늦어지고 있고 행정안

전부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제주특별법에 제257조의2를 신설해 제주학연구재단 설립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학연구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제주도의 역사와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제주도와 관련된 유형·무형 유산의 보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와 제주자치

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학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해당 특별법안 '제3장 연구기관의 설치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주학계에서는 이 역시 제주학연구재단의 탄생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전선희기자

서귀포 시인이 들려줄 '그 바다 숨비소리'

제주문학의집 토크 콘서트
원로 한기팔 시인과 만남
김규린 시인과 대담 진행

제주 대표 원로 시인의 문학 세계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문학의 집 (운영위원장 이종형)은 이날

15일 오후 5시 제주문학의 집 강의실에서 한기팔 시인 (사진) 초청 문학토크 콘서트를 펼친다.

서귀포시 보목동 출신 한기팔 시인은 향토적인 서정을 노래하며 서귀포에서 시와 더불어 살아왔다. 1975년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심상'을 통해 등단했고 1978년 첫 시집 '서귀포'를 시작으로 '풀잎소



리', '서러운 날 바람의 초상', '말과 침묵 사이', '순비기꽃' 등을 냈다. 최근에는 제주문화에 예술재단 제주원로예술가 회고 사업으로 서귀포를 감작적인 시어로 담아낸 320편의 시를 골라 '그 바다 숨비소리'란 이름으로 시선집을 묶

었다. 제주도문화상, 서귀포시민상, 제주문학상, 문학아카데미 시인들이 뽑는 시인상 등을 수상했다.

"시는 내 영혼의 모음"이라고 말해온 한기팔 시인은 이날 '그 바다 숨비소리'란 주제 아래 삶과 시, 시세계, 시 쓰기를 통한 시의 의미, 시 쓰기 습관과 방법 등을 청중들과 나눈다. 대담은 한 시인처럼 서귀포가 고향인 김규린 시인이 맡는다. 문의 070-4115-1038.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6월 10일~16일)

무대 & 미술

두 배우 열정 담은 소극장 연극 한편

2인극 '늙은 부부 이야기'
관객 호응 덕에 연장 공연

제주 부부 연극인이 제주를 배경으로, 제주어 대사로 새롭게 빛을 연극 한편을 추천한다. 강상훈·정민자의 2인극 '늙은 부부 이야기'다. 당초 지난 2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관객 호응에 힘입어 공연 일정을 이번 주말까지 늘렸다. 두 연극인이 오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 있게 그려낸 작품으로 소극장 연극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세이레아트센터로 발길을 돌려보자.

<공연>
▶제12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6월 10~13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 아트마켓, 쇼케이스, 교류협력 네트워킹, 제주인 페스티벌 등이 잇따른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02-3019-5841.

▶김수하 재즈트리오 미츠 클래식 뮤지션=6월 11일 오후 7시 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6월 12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아트피·천식 예방관리 인형극=6월 13일 오전 10시30분 문예회관. 010-7638-5854.

▶퀵텟알랑 정기연주회=6월 13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장애인 문화예술제=6월 14일 오후 2시 문예회관. 010-4490-5591.

▶매직드로잉 가족극 '우기부기'=6월 14일 오후 5시, 6월 15일 오후 2시와 5시 국립제주박물관. 720-8035.

▶4·3평화인권마당극제=6월 14~16일 4·3평화공원 야외 가설무대와 교육센터. 753-9539.

▶박용 독창회=6월 14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2790.

▶평화음악회=제주중고지도자협의회 주최 6월 15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4696-5172.

▶표선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6월 15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5678-0028. 전선희기자

▶제주피아노학회 콩쿠르=6월 15일 아라뮤즈홀. 754-4697.

▶여민동락=제주 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와 세종시 퓨전국악그룹 풍류가 만나는 가무악 무대로 6월 15일 오후 7시 김정문화회관. 760-3792.

▶바다탐험대 옥도넛 불가사리의 모험=6월 15~16일 제주아트센터. 1522-2061.

▶제주돌꽃합창단 정기연주회=6월 16일 오후 6시 문예회관. 010-9688-4312.

▶강태환 트리오 즉흥 라이브=6월 16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문화재단대극장. 733-5855.

▶현은숙의 건반 위 은파=6월 1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8975-9754.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6월 16일까지 목·금요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세이레아트센터. 1688-4878.

▶새연교 콘서트=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9시 30분. 760-2654.

<전시>
▶이가경 개인전 '영키고 가려진'=6월 10~23일 아트스페이스 씨. 첫날 오후 7시 작가와의 대화. 745-3693.

▶제주도 서예문화총연합회 전=6월 13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상반기 입주작가 결과 보고전=6월 13일까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760-356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드로잉 동아리 '그릴락전'=6월 14일까지. 010-7168-7952.

▶광주-제주 수목화 교류전=6월 15~20일 문예회관. 710-7633.

▶김중현 사진전=6월 15~20일 문예회관. 개막 행사는 6월 15일 오후 5시. 710-7633.

▶하늘빛수채화 정기전=6월 15~20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도예가회 정기전 '섬 이야기'=6월 16일까지 스페이스 에나르 갤러리. 772-4280.

▶정미숙 사진전 '섬의 빛·달'=6월 16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43. 전선희기자

Good Morning Vietnam

Return to Paradise

제주 ↔ 베트남 왕복직항 전세기

하노이/짱안/하롱베이 5일

다낭/호이안/후에 5일

8월 15일 899,000원

6월 27일 799,000원

여행일정 Hot Place ★★★★★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 (선상유람), 닌빈(짱안) 유랑답사, 종유석동굴 티투스성, 수상인형극, 전신마사지 1회

특식 3회 : 파라다이스 뷔페, 씨푸드, 무제한 삼겹살

여행일정 Hot Place ★★★★★

다낭 대성당, 까오다이 사원, 비밀의 사원, 호이안 옛 시가지 투봉강 수상유람, 후에 성(전동거), 티엔무 사원, 카이딘 황제릉 스톤마사지 체험 1회, 다낭 비치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uhongik.co.kr

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포함내역 왕복항공권, 4성급 2인 1실, 전 일정 식사, 차량료, 입장료, 해외여행 보험

불포함내역 가이드/기사 팁 \$50, 부가세, 개인 경비, 매너 팁